

보존처리·예술영화 사업 지역미술 가치 제고 ‘박차’

전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2개 사업 선정

전남도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주관하는 ‘2024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과 ‘2025 필름앤비디오 예술영화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선다.

먼저 2년 연속으로 선정된 ‘2024년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작가 곽남배(1929~2004년)의 수묵화 ‘모정’에 대한 본격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국가 중요 문화자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돼 지난해에는 전남도립미술관을 포함한 전국 8개 기관이 선정된 바 있다.

곽 작가는 남종화풍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실경산수화의 독창적 세계를 개척한 호남 화단의 대표 인물로 알려졌다.

그의 대표작 ‘모정’은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작으로서 예술적 정수가 응축됐다. 전통 남종화 기법 위에 개성적인 필치와 공간 구성을 더해 곽남배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남종화 대가 곽남배 작품 보존 진행 영화 5편 선보이는 ‘필름앤비디오’ 예술가 작업 과정 다룬 다큐멘터리 “도민 위해 공공·사회적 역할 매진”

특히 2021년 실시된 상태 조사에 따르면 ‘모정’은 황변, 찢김, 굵힘, 음울 등 다양한 물리적 손상이 확인돼 현재까지 미술관 수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돼 왔다.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작품의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민들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나누고자 기획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필름앤비디오’ 순회상영 프로그램 ‘창작의 순간-예술가의 작업실’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담은 예술영화 5편을 전남도립미술관 대강의



‘2024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에 선정된 곽남배 작 ‘모정’.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필름앤비디오’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외 예술영화를 소개하며,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의 순간을 깊이 있게 조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마주하는 혁신의 순간들을 조명하는 영화들로 구성됐다.

미술, 건축,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 5편을 통해 파블로 피카소, 백남준, 알토 등 동시대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깊이 들여다볼 전망이다.

상영작은 △피카소의 비밀(5월29일) △어느 날 피나가 말하길...(6월5일) △일렉트로니카 퀸즈: 전자 음악의 여성 선구자들(6월12일) △알토(6월19일)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6월26일) 등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https://artmuseum.jeonnam.go.kr>)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보존지원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의 대표적 회화 양식인 남종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예술적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 앞으로도 미술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필름앤비디오’ 순회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위한 미술관의 공공·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관람객 누구나 예술 창작의 본질과 여정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ACC 재단 신임 이사장 송진희·사장 김명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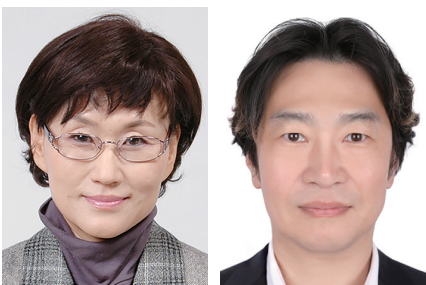
2028년 5월6일까지 임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신임 사장에게 김명규 전 극단 광대무변 대표를, 이사장으로는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최근 임명했다.

12일 ACC재단에 따르면 김 신임 사장은 목포 문태고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파우스트’ 등 연극 20여편에 출연하며 연극배우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 1998년 영화 ‘남자의 향기’를 시작으로 ‘미녀는 괴로워’, ‘화려한 휴가’ 등 스크린을 누비며 친숙한 얼굴로 알려졌다.

김 신임 사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창단한 광대무변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극단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ACC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송진희



김명규

송 교수는 원광대와 독일 국립빈스터 응용과학대에서 각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송 신임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호남대 예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5월6일까지다.

박찬 기자

“새로운 세대의 글쓰기로 5·18문학 갱신”

5·18문학상 본상에 한정현 작가
신인상 조모현·최현숙·박정희
24일 전일빌딩서 시상식 개최

5·18기념재단,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동주관하는 올해 5·18문학상 수상작이 발표했다. 본상 수상작으로는 한정현 작가의 소설집 ‘코코와 교지(사진)’가 선정됐고 신인상은 시 부문 조모현, 소설 부문 최현숙(필명 최현무), 아동문학 부문 박정희 작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을 수상한 ‘코코와 교지’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5·18문학의 갱신에 값하며, 이후 세대의 글쓰기를 추동할 성취를 이뤘다. 특히 작품 속 서술자가 보여주는 당대적 감수성과 여성, 성소수자, 폭력 문제를 아우른 연대와 연결의 문학적 모색이 돋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코코와 교지’는 지난 2021년 ‘문학과 사회’에 실려 부마항쟁문학상을 받은 동명의 단편을 포함해 총 10편의 작품이 실린 소설집이다.

신인상 부문은 지난 2월10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총 1097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시 부문 수상자인 조모현의 ‘꽃잎 속의 총구’는 5·18을 고정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인다”고 평했다.

한정현 작가는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소설집 ‘소녀 연애인 이보나’,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등을 펴내며

내면화된 기억과 두려움으로 환기한 시도로 호평받았다. 소설 부문 수상작 최현숙의 ‘판 후이를 위하여’는 경력 단절 여성이 베트남 선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은유적 구조를 형상화했으며, 아동문학 부문 수상작 박정희의 ‘긴긴밤 여우고개’는 여우고개 전설과 계엄 상황, 5·18을 환상적으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오월 너머의 문학, 세계의 물결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월문학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시 부문 300만원, 소설 부문 500만원, 아동문학 부문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계간 ‘문학들’에 작품이 수록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찬 기자

유물·공연예술 어우러진 ‘박물관 속 무용’

17일 국립광주박물관 야외무대
공연 후 소장유물 ‘금동관’ 관람

유물과 공연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협업해 선보이는 ‘박물관 속’ 시리즈의 다섯 번째 공연 ‘박물관 속 무용’이 오는 17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앞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국내 현대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LDP’(Laboratory Dance Project) 무용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수들로 이루어진 ‘M.A.P.(Movement. Analysis. Perform)’가 나서 김보라 안무가의 작품 ‘Runner’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의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이숙영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작품 ‘10 sequence’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무용수

의 신체가 10개의 시퀀스를 통과하며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감각을 선사한다.

공연 관람 후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 1실에 있는 ‘금동관’을 만날 수 있다. 전라남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착용자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장식물이다. 화려한 문양과 정교한 세공 기술로 만들어져, 당시 발달된 금속공예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소장유물인 ‘금동관’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박물관 주차장은 3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행사 관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시들지 않는 사랑을 ‘여백’에 담아낸다

이미에 개인전 ‘여백 ...’
15~21일 동구 이화갤러리

‘여백’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작가 이미에의 개인전이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 작가의 삶과 기억, 사랑을 담은 여백의 미학을 주제로 구성됐다. 작가에게 여백은 단순한 그림 속 빈 공간이 아닌, 생기와 상상을 불어넣는 여운의 자리이며, 관람객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철학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삶의 여유와 자유를 상징하는 인생의 여백’이자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그간 놓치고 있던 감정이나 관계를 되새길 기회인 셈이다.

이 작가에게 여백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도 맞닿아 있다. 봄날 뒷마루에 앉아 병아리와 놀던 기억, 초가집 마당에 염소와 배나무가 있던 풍경,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고향집을 그리 벽에 붙여두었던 순간은 그의 여백 속에 남아 그림으로 쓰인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 행복했고, 어린 마음에도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며 잠시 붓을 내려놓았던 작가는, 다시 꿈을 향한 기회가 찾아오자, 화선지를 펼쳐 새로운 인생의 여백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작품 속 ‘꽃’은 일상 속 기쁨과 계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가는 “작은 그릇은 내 마음속 어머니의 작은 품을 나타낸다. 그 그릇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게 하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며 “어머니에게 받았



이미에 작 ‘엄마의 정원(모란) II’.

이화갤러리 제공

던 사랑을 바탕으로 나 또한 자식에게 아름다운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시 오프닝행사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이화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박찬 기자